

01 교회소식

전파를 타고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

모든 지혜 위에 뛰어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GCN 방송을 통한 세계 복음화의 자취를 되짚어본다.

02 생명의 말씀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사 중 아이 성 전투의 패배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우쳐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

03 기획특집

연단을 통해 축복받는 비결

주 안에서의 연단은 하나님의 참 자녀로 나오는 축복의 길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다. 연단을 잘 이겨내는 방법을 살펴본다.

04 간증

“치료에 참 기쁨까지 얻었어요”

인도에서 나타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전하는 푸닛 형제와 방광결석을 치료받고 충만함을 되찾은 이경애 집사 간증.

만민뉴스

제678호 2015년 3월 22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무에서 유를 창조한 GCN 방송 선교

선하고 행복한 파장이 시청자들의 삶을 변화시켜



GCN 방송은 무수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졌으며, 시청자들의 영혼을 환하게 밝히는 생명력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170여 개국에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상단 사진은 GCN 시합방송 시작일에 송출실이 있는 미국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상공에 나타난 광채의 십자가, 중간 왼쪽부터 CNN에 보도된 '이재록 목사 초청 우간다 연합대성회', GCN 결성, 개국 기념행사, 이스라엘 연합대성회, 하단은 '2015 NRB 총회 및 박람회').

우리 교회 GCN 방송(사장 이정호 장로)이 올해도 세계기독방송인들의 축제 '2015 NRB 총회 및 박람회'에 참가했다.

NRB(National Religious Broadcasters)는 기독교 방송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매년 총회 및 박람회를 열어 방송기술과 프로그램을 교류하며 많은 기독교 방송인이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 2월 23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내슈빌 시 게이로드 오프리랜드 호텔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GCN 방송(www.gcntv.org)은 다양한 콘텐츠와 제작 기술력을 홍보하고, NRB 지도부 및 영향력 있는 기독교 방송인들과의 교류를 가졌으며, 5개국 8개 단체와 방송 협력을 체결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GCN 방송 이사장으로서 교회 개척 때부터 복음과 하나님 권능의 역사를 세계 만방에 전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방송 선교에 뜻을 두었다. 이를 위해 기도하던 중, 2000년 1월 1일 뉴 밀레니엄을 맞아 인터넷 방송으로 GCN 방송의 전신인 '만민TV'를 개국했다.

마지막 때에 방송 선교는 매우 효과적인 선교 방법이라는 확신 가운데 현실을 보지 않는 믿음의 행군을 시작한 것이다. 또한 GCN 방송 김진홍 국장은 NRB 총회 및 박람회(이하 NRB) 소식을 듣고 2000년 2월부터 NRB 행사에 참석해 방송 선교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발견하고, 방송 사역에 협력할 예비 된 사람들을 만나게 됐다.

NRB를 통해 향후 이재록 목사를 강사로 펼쳐질 해외 성회를 준비하는 데 연결고리가 될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뤄졌고, 성회 결과를 널리 홍보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그리하여 2000년 7월부터 이재록 목사 초청 해외 연합대성회를 생중계함으로써 현장에 동참하지 못한 많은 영혼이 TV방송을 통해 동일한 은혜와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다. 그 가운데 '2000 우간다 연합대성회'는 CNN에 보도돼 화제가 됐고, '2003 러시아 연합대성회'가 TBN러시아의 방송망을 타면서 만민TV가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2004년에는 세계 여러 기독교TV방송사 대표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 GCN(Global Christian Network)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그 뒤 2005년에는 미국 애틀랜타에 GCN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송출실에서 뉴욕 지역에 공중파 TV방송을 시작했다.

이후 콩고민주공화국, 미국 뉴욕,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성회 시에도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으로 세계 각국에 성회 실황을 송출하는 큰 활약을 했다. 특히 2009년 9월, 예루살렘 ICC(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이스라엘 연합대성회'는 전 세계 33개 방송사를 통해 220여 개국에 송출됐다.

2013년 10월에는 마지막 때 더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영적인 조지를 이루기 위해 이희진 목사(예능위원회 위원장)가 총괄국장으로 부임해 사랑으로 더욱 하

나 났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콘텐츠로 다채로운 신규 프로그램들을 제작 방송함으로써 시청자들의 큰 사랑과 관심 속에 새롭게 비상했다.

현재 GCN 방송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은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변화와 생명의 행복만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TBN러시아(사장 이고르 니키티) 관계자는 "세계 각국 GCN 프로그램 시청자들로부터 매달 수천 통의 간증과 감사 서신 등이 접수되고 있으며, 이사장 이재록 박사님의 환자기도와 생명의 말씀, 권능의 역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시청자들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남미 엔라세 방송에서도 치료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의 감사 서신과 더불어 중남미 각 지교회 및 우리 교회로 많은 사람이 등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우수 방송사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 공중파, 위성, 케이블 매체를 통해 전 세계 170여 개국에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GCN 방송을 통해 해외 지교회에서는 우리 교회와 동시에 생방송(일부는 시차관계로 녹화 방송)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영의 흐름을 함께 타며 세계 교구화를 이루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GCN 방송은 앞으로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인류에게 성경이 참임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며 주님의 지상명령을 창대히 이루나갈 것이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여호수아 7:10~13)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다음날 아침,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나와 한 지파를 뽑고 그 지파 중 한 족속을 뽑으며, 그 중에서 한 가족을 뽑고 다시 그 가족 중에서 한 남자를 뽑게 했습니다(수 7:16~18)

결국 유다 지파의 아간이 뽑혀 자신의 범행을 실토합니다. 여기고 성 전투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 중 값비싼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훔쳤으며 자기 장막 안에 숨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간 한 사람의 범죄였지만,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와 함께하실 수 없었습니다.

전도서 9장 18절 후반절에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게게 하느니라”는 말씀대로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이스라엘 전체를 죄악으로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고 결국 아이 성 전투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성결이요,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범죄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니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2. 죄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야 아이 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여호수아 7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과 그에게 속한 가족과 짐승들과 모든 소유까지 골짜기로 이끌고 가서 돌로 친 후에 불사르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로 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멸한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셨고, 아이 성을 공략할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 주셨습니다.

곧 이스라엘이 아이 성을 다시 공격하다가 패하는 척하고 달아남으로 아이 성의 군사들을 성에서 멀리 유인해 내라는 것입니다. 이때 몰래 아이 성 주변에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이 성으로 들어가 성을 점령하고 달아나던 군사들과 협공해 적군을 섬멸하라는 것이었지요(수 8:1~7).

이스라엘은 그대로 순종해 병사들을 매복시키고 아이 성을 공격하다가 지는 척하고 달아났습니다. 이미 한 번 승리를 맛본 아이 성 군사들은 급세 방심해 성문까지 활짝 열어 놓고 쫓아왔으며, 이때 매복한 군사

들이 일어나 비어 있는 아이 성을 점령함으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수 8:10~29).

3. 아이 성 전투가 주는 교훈

1)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에 기록된 대로 ‘아이 성이 작으니 삼천 명의 군사만 가면 되겠다.’ 하고 사람의 생각 가운데 전술을 짜지 말아야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이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여쭙야 했지요.

여리고에서의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방심하며 선불리 사람의 힘으로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점령하는 최후의 순간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 사업터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뤄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는 불같은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 마음에서 철저히 죄악을 벗어버리고 성결돼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 아이 성 전투에서 패한 까닭은 아간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죄악을 이스라엘 중에서 제한 후에야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아이 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벗어버릴 때라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무엇이든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한 후에 그 사실을 숨기거나, 혹은 마음에는 악이 가득한데 겉으로만 거룩한 척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숨길 수 없으며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심으로 함께하시는 증거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4.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율법을 선포케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 8장 30절 이하를 보면 아이 성을 점령한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을 이끌고 조금 떨어진 산으로 갑니다. 계속 정복전쟁을 할 상황이 아니었지요. 왜냐하면 아간의 범죄 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모세가 명한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훈시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의 중앙에는 에발과 그리심이라는 두 개의 산이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반으로 나눠서 각각의 산에 서게 하고는 하나님의 율법을 큰 소리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축복의 율법을 선포할 때는 그리심산에 선 백성이, 저주의 율법을 선포할 때는 에발산에 선 백성이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신 27:12-13).

이처럼 장엄하고 엄숙한 예식에 참석한 사람이라면 죽는 날까지 자신이 아멘으로 화답한 하나님의 계명을 감히 어길 마음을 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말씀대로 행할 때 어떤 축복이 임하고, 또 범죄할 때 어떤 저주가 임할 것인지 아이 성의 패전을 통해 아주 생생하게 마음에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미 수없이 가르친 내용이기엔 그냥 말씀으로 전하기만 하셔도 됐지만, 이렇게 극적인 방법을 통해 백성이 다시금 계명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을 늘 배워도 거듭 범죄함으로 질병이나 기근, 전쟁이나 이방의 압제 등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돌아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들의 모습은 이렇게 당장의 고난을 모면하고자 재앙이 두려워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정녕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 성을 진멸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다음 목적지인 아이 성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아이 성은 여리고 성에 비해 작으므로 쉽게 이길 줄 알았지만 무참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이 성 전투에서 패한 까닭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깨우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1. 아간의 범죄로 인해 아이 성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이 성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돌아오자 여호수아는 심히 애통했습니다.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께 앞에 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날이 저물도록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호소했지요(수 7:6~9).

이에 하나님께서는 패전의 이유를 알려 주셨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정복한 여리고 성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명하셨는데 이스라엘 중에 누군가가 거역했다는 것입니다(수 7:10~12).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수 없다는 말씀이었지요. 여호수아는 죄인을 찾아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라’ 하시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 주십니다(수 7:13~15).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교회 요시는 길**
-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팀(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 월요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려은행 :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연단을 통해 알곡 성도가 되는 방법

농작물이 비바람과 따가운 햇살을 견뎌 실한 열매를 맺듯이
우라도 믿음으로 연단을 견디며 알곡으로 맺히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참 자녀로 나오게 된다.
‘힘들다. 두렵다.’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믿고 바라면
어떤 연단이든지 능히 견딜 수 있다. 결국 연단은 축복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다
주 안에서 연단을 통해 알곡 성도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살펴본다.

첫째_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굳게 믿는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 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 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연단하심은 신앙생활을 통해 금 같은 믿음을 소유함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친 후 영원한 천국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얻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금같은 믿음을 소유하려면 마음의 악을 버

리기 위해 참아야 할 일도 많으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애매히 고난받는 일도 생긴다. 이때 ‘나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 하며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되 끝까지 믿어야 한다. 믿음의 시련이 길어질 때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을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며 의심한다면, 포기하고

싶거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굳게 마음에 새기고 인내해야 한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면 결국 온전한 사람으로 나오게 된다. 연단은 섬세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야 온전히 인내할 수 있고 믿음으로 값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둘째_ 소망을 이루는 지름길을 믿는다!

로마서 5장 3-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한 대로 연단은 소망을 신속히 이루는 지름길과 같다. ‘어느 세월에 변화될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연단을 잘 견뎌므로 변화되고 또 변화되면 결국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연단이 오면 피하지 말고 반드시 통과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사람의 마음은 늘 편안하고 좀 더 쉬운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연단을 피하면 그만큼 소망하는 목적지에 늦게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자신을 볼 때마다 사사건건 트집 잡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럴 때에도 그 사람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부딪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 사람과 부딪힐 때의 힘들음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상대를 진정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이루어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될 수 있다.
이처럼 연단의 상황은 소망을 향해 가는 길에 징검다리가 되고 지름길이 된다. 진정 하나님의 참 자녀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연단이 올 때마다 지름길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기쁨으로 담대히 모든 것을 견뎌 소망을 향해 힘차게 믿음으로 전진하기 바란다.

셋째_ 선한 생각만 하고 선만 행한다!

어떤 사람은 “왜 말씀대로 행했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을까?”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한다. 사람이 볼 때는 열심히 충성하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는 여전히 악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연단이 올수록 선한 생각만 하고 선을 행해야 이길 수 있다.
다니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는데도 악한 자들에게 모략 중상을 당해 사자굴에 들어 가게 됐다.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왕에게 원망과 탄식의 말을 하거나 모함한 자들에게 똑같이 악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최후의 순간까지 다니엘이 선만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해

털끝하나 상하지 않게 지키셨고, 계락을 꾸민 악한 자들이 대신 사자밥이 되고 말았다.
이처럼 악한 자를 선으로 대하는 것이 미련해 보일 수 있으나 오직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우며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시험이나 환난은 사람이나 어떤 환경 탓에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모든 믿음의 시련은 원수 마귀 사단이 가져다주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 아닌 원수 마귀 사단과 싸워 이겨야 한다.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영계의 법칙대로 싸워야 하는데, 이 영계의 법칙은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 대로 선을 행하면 당장에는 지는 것 같고 손해

보는 듯하지만,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은 공의롭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영계의 법칙대로 주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선이 승리한다. 따라서 어떤 시험과 환난, 핍박이 오더라도 오직 선만 행하면 능히 이길 수 있다.
만일, 믿지 않는 가족이 핍박을 한다면 믿음으로 선을 행해야 신속히 핍박이 물러가고 가정이 복음화 된다. ‘왜 저렇게 악할까?’ 하며 오히려 핍박하는 가족을 설득하고 이기려 한다면 시험은 더 커지거나 길어질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먼저 사랑으로 기도해 주고 주 안에서 섬김으로 가족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선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 사단을 물리쳐 주시고 가족의 마음을 주관해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신다.

GCN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5년 3월22일~3월28일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십자가의 도 19-23 ■ 축복 1
- 창세기 강해 23-27 ■ 예언 1
- 믿음의 분량 21-25 ■ 목자와 하나
- 1차 영혼육 1-3 ■ 우리의 충만은
- 십계명 5-9 ■ 우리가 바라볼 것
- 요한일서 강해 29-33
- 요한계시록 강해 22-28

GCN TV설교

- 사랑의 증거 (이수진 목사)
- 99.99 (2) (이미경 목사)
- 축복/영의 세계 31 (이희선 목사)
-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신동초 목사)
- 단호하신 하나님 (정규영 목사)
- 성령의 9가지 열매 2 (김수정 목사)
- 친히 이루어주시는 그분 (조현희 목사)

예능 프로그램

- 알콩달콩 어여쁜 율동 33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31
- English 9 ■ 뷰티풀 라이프 5
- 옛날 옛적에 1 ■ 내 마음의 찬양 8
- 흥겨운 소리 4 ■ 창조와 과학 6
- 모두 드려요 25 ■ 플로리스트 9
- 즐거운 요리 3

회상 9

- 인도 연합대성회 3
- 2014 지역장, 조장, 구역장 교육 3-4

해외성회 및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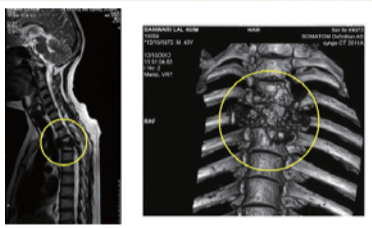
1577-2073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 왼쪽부터 첫째 여동생 아티, 건강을 회복한 아버지 반와리랄, 어머니 빔라, 푸닛, 둘째 여동생 불블.



▲ 하반신 마비인 아버지에게 『십자가의 도』를 읽어 주면서 푸닛은 심한 두통을 치료받았다.



▲ 치료받기 전 MRI : 결핵성 척추염으로 인해 흉추 2, 3번이 손상된 모습.

“평생 불구로 살아야 했던 아버지가 이제는 운전을 하세요!”

푸닛 형제 (18세, 인도 델리만민교회)

저는 다섯 살 때부터 간질로 인해 고통 속에 살았고, 늘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약을 복용했지만 증상은 여전히 있었고, 치료를 위해 가족이 힌두 사원에

가서 주술도 해보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지요.

게다가 2012년 3월, 공장 기술자로 일하시던 아버지가 결핵성 척추염으로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잘못돼 아버지는 하반신이 마비됐고, 평생 불구자로 침대에 누워 생활 하셔야만 했지요. 가정 형편은 아주 빈곤해졌고, 결국 어머니는 생계 유지를 위해 옷가게에서 점원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의 전도로 델리만민교회를 알게 된 어머니는 김상휘 담임목사님에게 심방을 요청해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렸지요. 그때 당회장 이재복 목사님 권능의 사역이 담긴 비디오를 시청했는데,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2012년 6월, 저희 가족은 참된 신이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교회에 가서서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라 담임목사님이 힌디어로 된 당회장의 저서 『십자가의 도』를 주시며 믿음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심방을 오셔서 아버지에게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시며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위해 매일 소리를 내어 『십자가의 도』 책을 읽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는 동안 신기하게도 저의

심했던 두통이 조금씩 사라졌지요.

어느 날, 아버지는 꿈에서 자신을 제외한 가족이 모두 들림 받아 혼자 남아 “주여! 주여!” 소리치며 울다가 잠에서 깰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그동안 들은 말씀을 떠올리며 자신을 돌아보시고, 당시 가족과의 재산 다툼으로 인해 마음에 품은 원망과 미움을 회개하셨습니다.

그 뒤 2013년 2월, 아버지는 손수건 기도를 받은 후 놀랍게도 죽었던 신경이 살아나 하반신에 감각을 느끼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되셨지요. 그런데 처음 교회에 가셨을 때 아버지는 휴거 장면이 담긴 단 그림을 보고 꿈에서 본 것과 같다고 하시며 매우 놀라워하셨습니다.

2014년 11월, 아버지는 GCN 생방송을 통한 주일예배 시 당회장의 환자기도를 받고 온전히 치료받으셔서 지금은 걷는데 전혀 이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템포’라고 하는 삼륜용달차를 운전하고 계시지요. 교회에서도 운전으로 봉사하십니다.

저 또한 간질을 치료받아 하위권이던 학교 성적이 향상돼 장학금도 받고 교회에서는 드림 연주 봉사도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손수건 기도로 최근에 여동생은 심한 열병을, 어머니는 온몸의 통증을 치료받으셨지요.

힌두교도였던 저희 가정이 기독교 가정으로 변화돼 얽혔던 질병의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풀려 치료받으니 간증을 들은 이웃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참 신이신 살아 계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방광결석을 치료받고 신앙생활의 행복도 되찾았어요”

이경애 집사 (47세, 대구만민교회)



▲ 왼쪽부터 교통사고 시 태중에서 보호받은 막내 아들 준재 형제, 남편 나병학 집사, 딸 윤희 자매, 이경애 집사, 큰 아들 광재 형제.

17년 전, 저는 12인승 승합차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바퀴에 펑크가 나서 차가 전복 되면서 고속도로 중앙 분리대에 부딪혀 차가 두 바퀴 반을 회전했지요. 사고 당시 임신 2개월로 셋째 아이를 잉태하고 있던 저는 차창 밖으로 멀쩡히 튕겨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제 몸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공중에서 천사가 떠받쳐 사뿐히 땅에 내려놓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지요. 그날 저녁, 당회장님께 기도받고 다음날 산부인과 검진을 받았는데 태아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해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요.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쉬고 겨우 주일 성수만 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계속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던 어느 날, 몸에 이상이 느껴졌지요. 수년 전부터 가끔씩 아랫배에 찌릿찌릿한 통증을 느끼며 소변을 보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4년 11월 22일,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는데 x-ray 검사 결과 방광에서 돌 같은 것이 보이고, 소변 검사에서는 혈뇨가 있다며 일주일간 약을 먹고 검사해 보자고 했지요.

병원 문을 나서서 집으로 가는 길에 많은 것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를 생각하면 더욱 충성했어야

하는데 은혜를 잊은 채 현실에 안주하며 살았던 것을 돌아보며 저는 그날부터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해 회개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지요. 그동안 남편과 자녀들에게 짜증난 일, 사명 감당을 힘들게 한 일 등을 통회자복했습니다.

마침 2014년 11월 30일, 남포항만민교회 창립 기념예배 및 성령충만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그곳에 참석해 만민전(全)지교회 총지도교사 이희선 목사님에게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 기도를 받았습니. 이내 배에 이상한 느낌이 와서 화장실에 가보니 검붉은 핏덩어리가 쏟아졌지요. 그날 저녁 식사 후에 또 한 번 쏟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 “혈뇨가 없고 돌도 보이지 않는다.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지요. 할렐루야!

이를 계기로 제 신앙은 새로워져 기쁨으로 충성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예배, 주일 자매회,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백성 5/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영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북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층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중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남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천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성시 상곡읍 광덕로 22, 연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8927-2073
- 경인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7133-9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탈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우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대로 112, 5층 ☎010-7133-9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